

## 영상 콘텐츠 활용의 과거 사례

### -영화를 매개체로 한 1960년대 박정희정부의 해외공보선전정책

이주봉 (Joobong Lee),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해외 공보선전은 타국 정부단체국민 뿐 아니라 재외교민 등을 대상으로 하여 타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한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 해외공보선전활동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부터 외무부 해외공관을 통해 주로 간행물을 매개체로 시행되었다. 이 시기 해외공보선전은 외교정책 대상국 범위가 협소한 관계로 그리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했고, 그 대상도 주로 재외국민이었다.

해외공보선전활동의 대상이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이다. '5.16군사정부'는 국립영화제작소와 해외방송을 전담하는 국제방송국을 신설하고, 공보선전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하였으며, 1961년 12월 13일 공보관 설치법을 공포하여 중앙공보관과 해외공보관을 설치하였다. 본 연구는 바로 해외공보선전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된 1960년대 5.16 군사정부와 박정희 정부가 연구할 것인데, 정부의 여러 주체 중 공보선전정책의 주무 부서인 공보부(1968년 문화공보부)와 해외 업무를 담당한 외무부가 주요 분석대상이다.

해외공보선전활동의 매개체는 간행물, 라디오 방송, 화보 등 매우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 영화는 5.16 군사정부 및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관리된 공보선전의 주요 매개체였다. 본 연구는 영화 중에서 문화영화와 극영화를 분석할 것이다. 문화영화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가 교육적, 문화적 계몽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국가가 의도한 바를 전달하는데 유용한 수단이었다. 극영화는 제작주체가 정부는 아니지만, 수많은 작품 중 선택하여 해외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목적을 파악하는데 도구가 될 수 있다.

5.16 군사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영화정책, 공보선전정책, 외교정책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된 영화가 해외공보선전정책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어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1960년대 해외공보선전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제도사 측면에서 해외공보선전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을 정리할 것이다. 특히 이 공보부외무부 등 상위 행정기관과 재외공관과 해외홍보관 등 해외 기구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다.

둘째, 영화사 측면에서 해외공보선전정책에 활용된 영화를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해외공보선전을 목적으로 새롭게 제작된 것과 이미 제작된 문화영화와 극영화 중 취사선택한 것으로 구분하고, 텍스트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교사 측면에서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외교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박정희 정부의 외교정책 대상이 자유, 중립, 공산진영으로 대별하여 추진되었는데, 이에 따른 해외공보선전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통해 관철시키려고 하였던 외교목표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박정희 정부의 국제정세 인식과 대외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국가 이미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3장으로 구성할 것이다. 먼저 1장에서는 해외공보선전정책의 정책 수립 기관으로 문화공보부와 외무부를, 정책 집행 기관으로 해외공관과 해외공보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박정희 정부 외교정책의 주요 대상국을 자유진영과 중립진영으로 대별하고, 이들 국가에 사용한 영화들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이를 통해 박정희 정부가 각 지역에 투사하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자료는 국가기록원과 외교부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공보부와 외무부 문서와 해외공보선전정책에 활용된 영화이다. 또한 주요 일간지와 잡지, 그리고 영화연예연감 등 도감류를 활용할 것이다.